

東醫寶鑑 口舌門의 鍼灸法에 관한 小考

임윤택¹ · 이준무¹

¹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Literature Study o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the Mouth & Tongue Section (in the Oehyeong Chapter) of the Donguibogam

Yuntaek Im¹, Joon-Moo Lee¹

¹Dept. of Meridian &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how the rationale of point-selection o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the Mouth & Tongue Section (in the Oehyeong Chapter) of the Donguibogam.

Methods : First, We summarized the causes of each disease in the Mouth & Tongue Section (in the Oehyeong Chapter) of the Donguibogam. Then, We explained the rationale of acupuncture point-selection referring to the cause of disease, physiology of the Oriental medicine, other uses of each acupuncture points in the Donguibogam, character of each acupuncture points, flow of meridian pathways and specific acupuncture points etc.

Results and Conclusions : Total 20 acupuncture points were used in the Mouth & Tongue Section (in the Oehyeong Chapter) of the Donguibogam. Most of acupuncture points were specific acupuncture points. But, some rationale of acupuncture point-selection were explained by the cause of disease, physiology of the Oriental medicine, other uses of each acupuncture points in the Donguibogam, flow of meridian pathways etc.

Key words : Donguibogam, specific acupuncture points, rationale of acupuncture point-selection

1. 서론

東醫寶鑑은 1814년에 許浚 등에 의해 編纂된 醫書로 우리나라 韓醫學系 전반에 걸쳐 매우 큰 영향력을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책이다. 東醫寶鑑은 內景, 外形, 雜病, 湯液, 鍼灸의 다섯 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篇에는 그에 해당하는 門을 두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나가고 있다. 각 門에는 그

門에 해당 하는 疾病들의 原因과 症狀, 治法 등을 수록하고 있는데 각 門의 말미에 鍼灸法이라는 項目을 두어 前述한 疾病들의 針灸治療法을 언급하고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수록된 수많은 疾病들에 대하여 많은 양의 針灸治療法을 소개하고 있지만 다른 醫書들과 마찬가지로 東醫寶鑑의 鍼灸法 역시 選穴理由나 運用方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러한 理由로 東醫寶鑑의 鍼灸法을 臨床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곧 큰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교신저자: 이준무,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Tel. 033-730-0662, Fax. 033-730-0653, E-mail : jmlee@sangji.ac.kr

· 투고 : 2008/08/29 심사 : 2008/09/13 채택 : 2008/09/19

이에 著者は 본 論文을 통해 東醫寶鑑 外形篇 口舌門의 鍼灸法에 사용된 各 經穴에 대하여 그 選穴의 原則과 運用 方法 등에 대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연구에 사용된 東醫寶鑑은 法仁文化社에서 2005년에 출판된 東醫寶鑑(ISBN 89-789 6-114-2-93510)을 사용하였다.

1. 東醫寶鑑 外形篇 口舌門의 鍼灸法에 기재되어 있는 經穴들에 대하여 해당 穴이 東醫寶鑑에서 주로 어떠한 쓰임을 갖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2. 東醫寶鑑 口舌門의 鍼灸法에 치료 穴이 나와 있는 病症들에 대해 어떤 治法을 東醫寶鑑은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病症의 治療穴의 主治가 부합하는지 조사하였다.
3. 東醫寶鑑에서 인용한 鍼灸法을 해당 원문에서 찾아 조사하고 인용 시 변화 여부와 인용문헌 내에서의 鍼灸法의 의의를 조사하였다.
4. 鍼灸大成(北京 人民衛生出版社에서 1984년 출판된 鍼灸大成校釋) 등 기타 다른 鍼灸經穴學 서적들에서 해당 穴의 穴性和 主治를 참조해 고찰하였다.

III. 결 과

1. 東醫寶鑑 口舌門 鍼灸法에 記載되어 있는 症狀

東醫寶鑑 口舌門에는 口瘡, 舌腫, 舌卷, 舌縱, 舌緩, 舌急, 緊脣 등의 疾患에 대한 鍼灸法이 기재되어 있다¹⁾.

口瘡은 口糜라고도 하며 입안과 혀가 허는 것을 말한다. 東醫寶鑑에서는 虛證과 實證으로 나눈다. 實證은 주로 熱로 인한 것으로 移熱湯, 柴胡地骨皮湯, 回春涼膈散, 玉芝飲子, 升麻散, 鵬砂元, 黑參丸 등의 處方을 사용한다. 다양한 熱證이 口瘡을 야기하는데 膀胱移熱於小腸, 心熱, 肺熱, 三焦火盛, 心肺有熱 등의 表現으로 보아 膀胱, 小腸, 三焦, 心肺脾 등의 熱邪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臟腑積熱, 膈熱 등의 病因도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다양한 기원의 熱邪가 口瘡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¹⁾.

虛證은 中焦氣不足, 虛火犯上, 陰虛 등으로 口瘡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實熱 뿐만 아니라 虛火 역시 口瘡의 病因이 된다는 것이다. 虛證으로 인한 口瘡은 理中湯加附子, 四物湯加知母黃柏, 甘草乾綱爲末 등의 處方으로 치료한다¹⁾.

舌腫은 혀가 붓고 단단해져서 입안에 가득 차는 것으로 呼吸과 言語驅使에 障礙를 초래한다. 東醫寶鑑은 舌腫의 病因을 心肺熱壅과 七情氣鬱로 보았으며 龍腦破毒散, 黃連湯, 清熱如聖散, 琥珀犀角膏 등의 處方으로 치료하였다¹⁾.

舌卷은 혀가 말려 들어가는 症狀으로 東醫寶鑑 外形篇 口舌門 舌屬心에 ‘三經爲四氣所中則舌卷不能言’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三經이란 心之本脈, 脾之絡脈, 肝脈을

말한다. 또한 口舌門 舌長舌短에 ‘足厥陰氣絕則舌卷而短’이라 말했다. 그에 대한 理由를 ‘厥陰者肝也, 肝主筋, 聚于陰器, 而絡于舌本, 故肝絕則舌卷卵縮’라 밝히고 있다. 東醫寶鑑 內景篇 五臟六腑門의 五臟有官에는 ‘心病者舌卷短’이라고 하였다. 종합해 보면 東醫寶鑑에서는 舌卷을 肝心脾 三經의 문제로 여기고 있지만 그 중 肝과 心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舌卷의 치료법은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¹⁾.

舌縱은 東醫寶鑑에서 3번 밖에 등장하지 않는 症狀이다. 그 중 하나가 口舌門의 鍼灸法이며 다른 하나는 內景篇 言語門의 瘖不得語에 ‘不得語非止一端, 有舌強不語, 神昏不語, 口噤不語, 舌縱語澁, 舌麻語澁, 其間治痰, 治風, 安神, 養氣血, 各從活法治之’라 하여 不得語의 이유 중 하나로 등장한다. 나머지 하나는 雜病篇 小兒門의 滯頤에 ‘舌縱涎下皆屬於熱’이라는 구절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東醫寶鑑에서는 舌縱의 原因을 熱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舌縱의 治法이나 治方은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雜病篇 小兒門의 滯頤에 通心飲을 쓴다는 記載가 있다¹⁾.

舌緩과 舌急 역시 東醫寶鑑에서 흔히 등장하는 症狀이 아니다. 口舌門의 鍼灸法을 제외하면 內景篇 言語門의 鍼灸法에 ‘舌緩不能言取瘖門’이라는 언급밖에 없다¹⁾.

緊脣은 繭脣이라고도 하며 口脣緊小, 不能開合하는 症狀을 말한다. 瀉黃散, 瀉黃飲子, 薏苡仁湯를 쓰면 外用으로 黃栢散, 白灰散, 靑皮燒灰 등을 사용한다¹⁾.

2. 東醫寶鑑 口舌門 鍼灸法에 記載되어 있는 經穴

CV₂₄(Seungjang)은 東醫寶鑑에 총 14번 등장한다. 口瘡, 緊循, 上牙痛, 口齒蝕生瘡, 項強, 口噤의 치료혈로 나와 있다. 나머지는 CV₂₄(Seungjang)의 위치에 관한 내용이다¹⁾. 鍼灸大成에서는 主偏風, 半身不遂, 口眼喎斜, 面腫消渴, 口齒疳蝕生瘡, 暴瘡不能言이라 하였다²⁾.

LL₄(Hapgok)은 東醫寶鑑에 50번 등장한다. 衄血, 暴瘡, 瘖不能言, 傷寒汗不出, 月經斷絕, 裏急後重, 痢不止, 偏正頭痛, 正頭痛, 眉稜骨痛, 眼睛痛, 目赤腫瞖羞明隱澁, 諸障瞖, 迎風冷淚眵黑花, 耳鳴, 耳聾, 鼻流濁涕有穢氣, 鼻塞不聞香臭, 鼻流臭穢, 口瘡, 牙痛牙槽, 喉閉, 咽喉腫痺, 傷寒六脉俱無, 五指皆痛, 臂膊痛麻痺, 脫肛, 卒中昏倒不省牙噤涎潮口眼喎斜精神恍惚, 治風, 半身不隨, 口噤, 骨痺, 傷寒頭痛, 傷寒汗不出, 傷寒汗多不止, 傷寒頭痛, 傷寒熱退後再發熱, 渾身瘡疥, 催生難產及下死胎, 疳眼의 치료혈이다. 脈診 부위 중 하나이기도 하며 大腸經의 原穴이다. 禁鍼穴로 분류되어 있기도 하다. 나머지는 LL₄(Hapgok)의 위치에 대한 언급이다. 鍼灸大成에서는 主傷寒大渴, 脈浮在表, 發熱惡寒, 頭痛脊強, 無汗, 寒熱瘧, 鼻衄不止, 熱病汗不出, 目視不明, 生白翳, 下齒齲, 耳聾, 喉痺, 面腫, 脣吻不收, 喑不能言, 口噤不開, 偏風, 風疹, 痲疥, 偏正頭痛, 腰脊內引痛, 小兒單乳鵝라 하였다³⁾.

GV₂₆(Sugu, 人中)은 東醫寶鑑에 총 40번 등장한다. 鼻流清涕濁涕, 鼻塞不聞香臭, 鼻流臭穢, 鼻中瘰肉, 口瘡, 脊脊強痛, 腎虛腰痛, 挫閃腰痛, 腰脚痛, 初中倒時不醒者, 風邪初

入, 卒中昏倒不省牙噤涎潮口眼喎斜精神恍惚, 口噤, 失音不語, 百邪所病, 卒中邪魅恍惚, 中惡, 諸卒死及魘死에 쓰는 혈이다. 또한 각종 질병의 예후를 판단하거나 東醫寶鑑 內景篇 小腸腑門에 “脣厚人中長以候小腸”라 하는 등 臟腑의 상태를 판단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鍼灸大成에서는 主消渴, 飲水無度, 水氣遍身腫, 失笑無時, 癲癩語不識尊卑, 乍哭乍喜, 中風 口噤, 牙關不開, 面腫脣動, 狀如衝行, 卒風惡, 鬼擊, 喘喝, 目不可視, 黃疸與, 溫疫, 通身黃, 口喎噤. 灸不及針, 艾炷小雀糞大. 水面腫, 針此一穴, 出水盡即愈라 하였다³⁾.

GV₁(Janggang)은 東醫寶鑑에 총 7번 등장한다. 口瘡, 痔疾, 脫肛의 치료혈이다. 나머지는 督脈之別로서의 GV₁(Janggang)의 특징과 위치에 관한 것이다¹⁾. 鍼灸大成에서는 主腸風下血, 灸痔瘻, 腰脊痛, 狂病, 大小便難, 頭重, 洞泄, 五淋, 疔蝕下部, 小兒顛陷, 驚癇瘵癩, 嘔血, 驚恐失精, 瞻視不正. 慎冷食, 房勞라 하였다²⁾.

Ex-HN₁₂(Geumjin)Ex-HN₁₃(Ogaek)은 東醫寶鑑에 총 3번 등장한다. 口瘡과 舌腫의 치료혈이다. 나머지 하나의 언급은 Ex-HN₁₂(Geumjin)Ex-NH₁₃(Ogaek)의 위치에 관한 내용이다¹⁾. 鍼灸大成에서는 治重舌腫痛, 喉閉, 用白湯煮三稜針, 出血이라 하였다²⁾.

BL₄₀(Wijung)은 東醫寶鑑에 총 32번 등장한다. 赤帶, 癰閉, 口瘡, 上牙痛, 腰曲不能伸, 腎虛腰痛, 挫閃腰痛, 腰痛, 腰脚痛, 膝痛足蹶, 膀胱氣, 痔痛, 骨痺, 四肢之熱, 乾霍亂, 癲風, 疥癬의 치료혈이다. 나머지는 BL₄₀(Wijung)의 위치와 膀胱經의 合土穴이며 六腑下合穴의 하나인 BL₄₀(Wijung)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 BL₄₀(Wijung)은 禁灸穴로 나와 있기도 하다¹⁾. 鍼灸大成에서는 主膝痛, 及拇指腰俠脊沉沉然, 遺溺, 腰重不能舉, 小腹堅滿體風

痺, 髀樞痛, 可出血, 瘡皆愈, 傷寒四肢熱, 熱病汗不出, 取其經血立愈, 委中者, 血郄也. 大風髮眉墮落, 刺之出血이라 하였다²⁾.

SI₃(Hugye)는 東醫寶鑑에 총 11번 등장한다. 癰病, 癲狂, 失志痴騃, 耳鳴, 口瘡, 頸項痛, 臂痠攣의 치료혈이다. SI₃(Hugye)는 小腸經의 兪木穴이며 八脈交會穴 중 하나로 督脈과 통한다. 나머지는 SI₃(Hugye)의 위치에 관한 언급이다. 鍼灸大成에서는 主瘡寒熱, 目赤生翳, 鼻衄, 耳聾, 胸滿, 頸項強, 不得回顧, 癲疾, 臂肘攣急, 痲疥라 하였다⁴⁾.

BL₁₉(Damsu)는 東醫寶鑑에 총 4번 등장한다. 口瘡, 脇并胸痛不可忍의 치료혈이다. 나머지는 BL₁₉(Damsu)의 위치를 설명한 것이다¹⁾. 鍼灸大成에서는 主頭痛, 振寒汗不出, 腋下腫脹, 口苦舌乾, 咽痛乾嘔吐, 骨蒸勞熱食不下, 目黃이라 하였다²⁾.

BL₂₇(Sojangsu)는 東醫寶鑑에 총 6번 등장한다. 下痢腹痛便膿血, 口瘡, 卒疝辜腫暴痛의 치료혈이다. 나머지는 BL₂₇(Sojangsu)의 위치를 설명한 것이다¹⁾. 鍼灸大成에서는 主膀胱, 三焦津液少, 大小腸寒熱, 小便赤不利, 淋瀝遺尿, 小腹脹痛, 癰痛, 泄利膿血, 五色赤痢下重, 腫痛, 脚腫, 五痔, 頭痛, 虛乏消渴, 口乾不可忍, 婦人帶下라 하였다²⁾.

LR₃(Taechung)은 東醫寶鑑에 총 29번 등장한다. 失精精溢, 上氣, 癰病, 崩漏不止, 殮泄, 內障, 口瘡, 喉痺乳蛾, 九種心痛, 乳癰, 臍腹痛, 胸脇脹痛, 肝熱生筋痿, 膝內廉痛, 足腕痛, 諸疝, 小腸氣, 骨痺, 催生難産의 치료혈이다. 나머지는 太衝脈의 脈診處이며 肝經의 原穴, 臑土穴이고 LL₄(Hapgok)과 더불어 四關穴인 LR₃(Taechung)의 특징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¹⁾. 鍼灸大成에서는 主心痛脈弦, 馬黃, 癩疫, 肩腫吻傷, 虛勞浮腫, 腰引小腹痛, 兩丸蹇縮, 溇泄, 遺溺, 陰痛, 面目蒼色, 胸脇支滿, 足寒, 肝心痛, 蒼然如死狀, 終日不得息,

大便難, 便血, 小便淋, 小腸山氣痛, 瘡疔, 小便不利, 嘔血嘔逆, 發寒, 噎乾善渴, 肘腫, 內踝前痛, 淫瀼, 胎酸, 腋下馬刀瘍癭, 脣腫, 女子漏下不止, 小兒卒疔이라 하였다²⁾.

PC₈(Nogung)은 東醫寶鑑에 총 9번 등장한다. 口瘡, 傷寒汗不出, 反胃의 치료혈이다 나머지는 PC₈(Nogung)의 위치에 관한 언급이다. 한편 東醫寶鑑에서는 PC₈(Nogung)을 心の 榮火穴로 다루고 있다¹⁾. 鍼灸大成에서는 主中風, 善怒, 悲笑不休, 手痺, 熱病數日汗不出, 恍惚, 脅痛不可轉側, 大小便血, 衄血不止, 氣逆嘔噦, 煩渴食飲不下, 大小人口中腥臭, 口瘡, 胸脅支滿, 黃疸目黃, 小兒齕爛아라 하였다²⁾.

CV₂₃(Yeomcheon)은 東醫寶鑑에 총 7번 등장한다. 暴瘧氣喘, 舌下腫難言, 舌腫難言, 舌腫脹甚의 치료혈로 등장한다¹⁾. 나머지는 CV₂₃(Yeomcheon)의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며 CV₂₃(Yeomcheon)은 陰維脈과 任脈의 交會穴이기도 하다. 鍼灸大成에서는 主咳嗽上氣, 喘息, 口沫, 舌下腫難言, 舌根縮急不食, 舌縱涎出, 口瘡이라 하였다²⁾.

CV₂₂(Cheondol)은 東醫寶鑑에 총 18번 등장한다. 卒然無音, 舌腫難言, 失音不語, 五噎五膈, 咳嗽有痰, 咳嗽聲破喉嘶, 喘, 傷寒嗽甚, 哮喘, 癭 등의 치료혈로 언급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CV₂₂(Cheondol)의 위치와 소속 등에 대한 언급이다¹⁾. 鍼灸大成에서는 主面皮熱, 上氣咳逆, 氣暴喘, 咽腫咽冷, 聲破, 喉中生瘡, 喉猜猜咯膿血, 瘡不能言, 身寒熱, 頸腫, 哮喘, 喉中翁翁如水鷄聲, 胸中氣梗梗, 俠舌縫青脈, 舌下急, 心與背相控而痛, 五噎, 黃疸, 醋心, 多唾, 嘔吐, 癭瘤라 하였다²⁾.

LU₁₁(Sosang)은 東醫寶鑑에 총 15번 등장한다. 舌腫難言, 喉閉, 咽喉腫痺, 喉痺乳蛾, 中風偏枯, 尸厥의 치료혈이다. 나머지는 肺經의 井木穴인 LU₁₁(Sosang)의 특징과 위치

에 관한 언급이다. LU₁₁(Sosang)은 東醫寶鑑에서 禁灸穴로 기재하고 있기도 하다¹⁾. 鍼灸大成에서는 主頤腫喉閉, 煩心善噦, 心下滿, 汗出而寒, 咳逆, 痰瘧振寒, 腹痛, 唾沫, 脣乾引飲, 食不下, 膨膨, 手攣指痛, 掌熱, 寒慄鼓頤, 喉中鳴, 小兒乳鵝라 하였다²⁾.

KI₂(Yeongok)은 東醫寶鑑에서 총 18번 등장한다. 失精精溢, 少氣, 善恐心惕惕, 殮泄, 舌腫難言, 卒心痛, 心痛引背, 厥心痛, 足五指盡痛, 木腎大如升不痛, 全不思食, 小兒初生臍風撮口の 치료혈이다. 나머지는 KI₂(Yeongok)의 위치에 관한 설명이며 KI₂(Yeongok)은 腎經의 榮火穴이기도 한다. 한편 KI₂(Yeongok)은 東醫寶鑑에서 禁鍼穴로 나와 있기도 하다¹⁾. 鍼灸大成에서는 主咽內腫, 不能內唾, 時不能出唾, 心恐懼如人將捕, 涎出喘呼少氣, 足跗腫不得履地, 寒疝, 小腹脹, 上搶胸脇, 咳唾血, 喉痺, 淋瀝白濁, 胎酸不能久立, 足一寒一熱, 舌縱, 煩滿, 消渴, 自汗, 盜汗出, 痿厥, 洞泄, 心痛如錐刺, 墜墮惡血留內腹中, 男子精泄, 婦人無子, 陰挺出, 月事不調, 陰痒, 初生小兒臍風口噤이라 하였다²⁾.

GV₁₆(Pungbu)는 東醫寶鑑에 총 33번 등장한다. 衄血, 吐血, 內障, 眼睛痛, 鼻流清涕濁涕, 鼻塞不聞香臭, 鼻中瘰肉, 舌腫難言, 舌急, 下牙痛, 咽喉腫痺, 項強, 失音不語, 傷寒頭痛少陽證의 治療穴이다. 또한 GV₁₆(Pungbu)는 東醫寶鑑 外形篇 頸項門에서는 “巨陽者諸陽之屬也其脉連於風府故爲諸陽主氣也”기 때문에 “風府宜護”라 하였다. 또한 外邪의 侵入經路로서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였고 禁灸穴로 분류하고 있기도 하다. 나머지는 GV₁₆(Pungbu)의 위치에 관한 언급이다. 鍼灸大成에서는 中風, 舌緩不語, 振寒汗出, 身重惡寒, 頭痛, 項急不得回顧, 偏風半身不遂, 鼻衄, 咽喉腫痛, 傷寒狂走欲自殺, 目妄

視, 頭中百病, 馬黃黃疸이라 하였다³⁾.

TE₂(Aengmun)은 東醫寶鑑에 총 8번 등장한다. 氣亂于臂脛, 耳鳴, 舌卷, 肘臂腕痛의 治療穴이다. 나머지는 三焦經의 榮水穴인 TE₂(Aengmun)의 특징과 TE₂(Aengmun)의 위치를 설명한 것이다¹⁾. 鍼灸大成에서는 主 驚悸妄言, 咽外腫, 寒厥, 手臂痛不能自上下, 痲瘡寒熱, 目赤澁, 頭痛, 暴得耳聾, 齒齦痛이라 하였다²⁾.

LI₂(Igan)은 東醫寶鑑에 총 6번 등장한다. 氣亂于臂脛, 舌卷, 下牙痛의 治療穴이다 나머지는 LI₂(Igan)의 위치에 관한 언급이며 LI₂(Igan)은 대장경의 榮水穴이기도 하다¹⁾. 鍼灸大成에서는 主 喉痺, 頷腫, 肩背痛, 振寒, 鼻衄衄血, 多驚, 齒痛, 目黃, 口乾口喎, 急食不通, 傷寒水結이라 하였다²⁾.

KI₁₀(Eumgok)은 東醫寶鑑에 총 10번 등장한다. 癲狂, 崩漏不止, 小便淋閉, 小便滑數, 婦人産後腹脹大小便不通, 舌縱涎下, 臍腹痛의 治療穴이다. 나머지는 腎經의 合水穴인 KI₁₀(Eumgok)의 특징과 위치에 관한 언급이다¹⁾. 鍼灸大成에서는 主 膝痛如錐, 不得屈伸, 舌縱涎下, 煩逆, 溺難, 小便急引陰痛, 陰痿, 股內廉痛, 婦人漏下不止, 腹脹滿不得息, 小便黃, 男子如蠱, 女子如娠이라 하였다²⁾.

GV₁₅(Amun)은 東醫寶鑑에 총 9번 등장한다. 衄血, 舌緩不能言, 舌急, 頸項痛強, 失音不語의 治療穴이다. 나머지는 GV₁₅(Amun)의 위치에 관한 언급이며 東醫寶鑑에서는 GV₁₅(Amun)을 禁灸穴로 기재하고 있다¹⁾. 鍼灸大成에서는 主 舌急不語, 重舌, 諸陽熱氣盛, 衄血不止, 寒熱風瘧, 脊強反折, 癩癧癩疾, 頭重風汗不出이라 하였다²⁾.

IV. 고 찰

東醫寶鑑에서는 구창의 治療穴로 CV₂₄

(Seungjang), LL₄(Hapmok), GV₂₆(Sugu, 人中), GV₁(Janggang), Ex-HN₁₂(Geumjin) Ex-HN₁₃(Ogaek), BL₄₀(Wijung), SI₃(Hugye), BL₁₉(Damsu), BL₂₇(Sojangsu), LR₃(Taechung), PC₈(Nogung)을 언급하고 있다.

口瘡의 治療穴로 CV₂₄(Seungjang)을 선택한 이유는 CV₂₄(Seungjang)이 任脈의 穴이기 때문에 病處와 가까운 곳에서 近位取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靈樞 五音五味篇 第2章을 보면 任脈은 衝脈과 胞中에서 起始하고 脊裏를 循하여 經絡之海가 되고 그 浮而外者는 循腹上行하여 會於咽喉하며 別而絡脣口한다⁵⁾. 따라서 任脈이 상하면 口脣을 不營하게 되므로 口脣病에 任脈의 穴을 治療穴로 선택하는 것이다. CV₂₄(Seungjang)은 任脈의 穴 중 口脣에 가장 가까운 穴로 鍼灸大成에 의하면 口齒疳蝕生瘡를 治療하는 효과가 있다²⁾. 따라서 口瘡와 緊脣의 治療穴이 된다.

鍼灸大成의 四總穴歌를 보면 LL₄(Hapmok)은 四總穴 중 하나로 面口의 병에 LL₄(Hapmok)을 취한다고 하였다²⁾. 때문에 口瘡의 治療穴이 된다. 또한 緊脣不能開合의 治療穴을 虎口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東醫寶鑑 鍼灸篇의 LL₄(Hapmok)을 보면 '一名虎口'라 하고 있어 緊脣不能開合의 治療穴 역시 四總穴 중 하나고 口面의 병을 담당하고 있는 LL₄(Hapmok)이 된다¹⁾.

GV₂₆(Sugu, 人中)과 GV₁(Janggang)은 督脈의 穴로 督脈은 그 흐름이 口脣의 內部에 도달하고 脣內에서 任脈과 만나기 때문에 督脈의 穴들이 口瘡의 治療穴로 사용될 수 있다¹⁾. GV₁(Janggang)은 그 위치가 口瘡의 病處와 멀리 떨어져 있으나 督脈은 任脈과 그 흐름이 身體의 어떤 지점에서 만나는데 그 하나가 口瘡의 病處가 되는 脣內이며 다

른 하나가 GV₁(Janggang)이기 때문에 口瘡의 치료혈로 GV₁(Janggang)을 쓰는 것이다. 督脈의 穴 중 素膠에서 恩敎의 4穴은 腦, 鼻, 口, 齒疾患을 治療하는데 그 중 GV₂₆(Sugu, 人中)을 대표적으로 선택한 것이다⁶⁾.

Ex-HN₁₂(Geumjin)Ex-HN₁₃(Ogaek)은 舌下의 經外奇穴로 주로 口舌病에 사용하는 穴이다. 동의보감에서는 Ex-HN₁₂(Geumjin) Ex-HN₁₃(Ogaek)을 口瘡과 舌腫의 치료혈로 記載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역시 病處의 經外奇穴을 近位取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口瘡의 鍼灸法에 있는 委中瀉後谿는 醫學綱目中서 인용된 것으로 醫學綱目에는 委中瀉, 後谿 補로 되어있다⁷⁾. 이는 口瘡이 膀胱移熱於小腸의 原因으로 발생한다는 東醫寶鑑의 의견에 매우 적당한 것으로 膀胱經의 BL₄₀(Wijung)을 瀉하고 小腸經의 SI₃(Hugye)를 보하는 鍼法으로 膀胱의 熱이 小腸으로 전해져서 생긴 口瘡을 치료하는 것이다.

한편 東醫寶鑑 外形篇 口舌門 口苦를 살펴보면 ‘心熱則口苦或生瘡’라 하였고 ‘肝移熱於膽則口亦苦’라 하였다. 즉 口苦와 口瘡은 모두 熱로 인한 것인데 口苦는 주로 肝移熱於膽한 所致이고 口瘡은 膀胱移熱於小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臟腑積熱 역시 口瘡의 原因으로 밝히고 있는바 肝膽의 熱로 인하여 口苦口瘡의 病症이 출현하였을 때 BL₁₉(Damsu)와 LR₃(Taechung)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LR₃(Taechung)은 肝經의 原穴이며 BL₁₉(Damsu)는 膽의 背俞穴로 鍼灸大成에서는 ‘六腑結熱, 血妄行不已, 取六腑俞, 并血會治之’라 하여 六腑의 熱을 六腑의 背俞穴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²⁾. BL₂₇(Sojangsu) 역시 小腸의 熱을 除去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PC₈(Nogung)은 心의 熱로 인한 口瘡에 사용되는데 心經 대신 心

包經의 穴이 사용된 이유는 ‘諸邪之在於心者, 皆在於心之包絡, 包絡者心主之脈也’라 하였기 때문이다¹⁾. 즉 ‘心臟堅固, 邪不能容, 故手少陰獨無輸, 其外經病, 而藏不病’라 하여 五臟으로서의 心은 쉽게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다면 外經에 병이 든 것이라는 의견을 따라 心熱을 제거하는데 心包經의 穴을 대신하여 사용한 것이다. 東醫寶鑑은 手少陰心經의 五俞穴을 心包經의 穴들로 대신하고 있는데 東醫寶鑑에 따르면 PC₈(Nogung)은 手少陰心經의 榮火穴로 心熱을 제거할 수 있는 經穴이 된다¹⁾.

東醫寶鑑 外形篇 口舌門 鍼灸法을 보면 ‘舌腫難言, 取廉泉金津玉液, 各以三稜出血, 又取天突少商然谷風府’라 하고 이를 醫學綱目中서 인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상의 經穴 외에도 ‘凡舌腫脹甚, 先刺舌尖, 或舌上, 或舌傍出血, 惟舌下廉泉穴禁鍼’, ‘凡舌腫, 舌下必有噤虫, 狀如蝮蛇臥蠶, 有頭有尾, 頭少白, 可燒鍼烙, 烙頭上即消’, ‘舌腫如猪胞, 以鍼刺舌下兩傍大脉, 血出即消. 切勿刺中央脉, 血不止則死. 若誤刺, 以銅筋火燒烙之, 或醋調百草霜塗之. 須臾自消, 此患, 人多不識, 失治則死’라 하여 舌腫에 舌尖, 舌傍, 舌上, 舌下の Ex-HN₁₂(Geumjin) Ex-HN₁₃(Ogaek) 등을 瀉血하는 것이 有效하다고 記載하고 있다. 즉 東醫寶鑑에서의 舌腫의 주된 치료법은 혀 자체의 瀉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CV₂₃(Yeomcheon)의 경우는 東醫寶鑑 내에서도 舌腫에 瀉血을 하라는 내용과 CV₂₃(Yeomcheon)만은 침을 놓아 피를 내지 말라는 相反되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醫學綱目 원문을 살펴보면 ‘治舌腫, 廉泉三分灸. 金津玉液各用三稜針出血. 天突, 少商. 又法, 廉泉, 然谷, 風府, 天突, 關元’이라고 되어있다⁷⁾. 즉 三稜鍼으로 瀉血하는 것은 Ex-HN₁₂(Geumjin) Ex-HN₁₃

(Ogaek)뿐 CV₂₃(Yeomcheon)은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즉 舌腫의 治療法으로 瀉血法을 선택할 경우 Ex-HN₁₂(Geumjin) Ex-HN₁₃(Ogaek) 등의 혀 자체에 瀉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CV₂₃(Yeomcheon) 등의 기타 經穴의 경우에는 구태여 瀉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醫學綱目에서 CV₂₃(Yeomcheon)을 설명한 것 중에 ‘況足陽明之脈, 根於厲兌, 結於廉泉, 頷下乃足陽明之所行也’라는 記載가 있다⁷⁾. 즉 足陽明經과 任脈의 CV₂₃(Yeomcheon)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心脾의 鬱熱로 인해 발생하는 舌腫에 舌本이라는 異名을 가지고 있기도 한 CV₂₃(Yeomcheon)을 B치료혈로 선택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CV₂₂(Cheondol)을 舌腫難言에 사용한 이유는 東醫寶鑑 內景篇 聲音門 厥氣爲瘖에 나와 있다. ‘人卒然無音, 刺之奈何, 岐伯曰, 足之少陰上繫於舌, 絡於橫骨, 終於會厭, 兩瀉其血脉, 濁氣乃辟. 會厭之脉上絡任脉, 取之天突(穴名)其厭乃發’라 한 것이 그것이다¹⁾. 즉 CV₂₂(Cheondol)은 會厭이라는 發聲器官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經혈로 舌腫難言의 症狀에서 舌腫 보다는 難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選穴인 것이다. 東醫寶鑑 내에서 CV₂₂(Cheondol)은 言語의 문제, 嘔吐, 咳嗽, 癭 등의 前頸部 疾患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LU₁₁(Sosang)은 手太陰肺經의 井木穴이며 手太陰肺經이나 手太陰經筋, 手太陰絡脈 등은 口舌로 주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舌腫難言의 治療穴로 LU₁₁(Sosang)이 선택된 것은 會厭의 치료를 위해 CV₂₂(Cheondol)을 선택한 이유와 같다. 東醫寶鑑 外形篇 咽喉門의 咽喉會厭與舌其用不同에서는 ‘四者交相爲用’라 하여 咽 · 喉 · 會厭 · 舌이 개개의 역할은 다르지만 근접한 부위

에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였고¹⁾. 또한 東醫寶鑑 外形篇 口舌門에서 舌腫의 病因을 心脾熱壅, 心火라 하였는데 咽喉門에서는 ‘咽喉之病皆屬於火’라 하여 두 부위의 疾患이 비슷한 原因으로 발생한다고 하였다¹⁾. 치료 방법 역시 유사하여 口舌門에서는 舌腫의 處方으로 龍腦破毒散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咽喉門의 處方으로 急慢喉閉腫塞不通의 治療방이다¹⁾. 鍼治療法에서도 공통점이 있는데 LU₁₁(Sosang)의 경우 舌腫과 喉閉에 공통적으로 쓰여 龍腦破毒散과 같은 쓰임을 보이고 있다. 즉 LU₁₁(Sosang)을 舌腫難言의 治療穴로 사용한 것은 火로 인해 목구멍과 혀 등이 부어 말하기 힘든 것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手太陰經別이 喉嚨을 沿하여 走行하며 井穴이 火로 인한 疾患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⁶⁾.

KI₂(Yeongok)은 足少陰腎經의 榮火穴로 足少陰腎經이 ‘循喉嚨, 挾舌本’하기에 足少陰經의 火로 인한 舌腫을 치료한다⁶⁾.

舌卷은 ‘三經爲四氣所中’ 혹은 ‘足厥陰氣絕’하거나 ‘心病’으로 인하여 생긴다. 한편 手少陽經筋이 舌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手少陽經筋의 ‘其病當所過者’ 역시 舌卷을 야기할 수 있다. 舌卷의 治療穴로 TE₂(Aengmun)을 제시한 것도 TE₂(Aengmun)이 手少陽經의 病이 漸漸 深해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榮穴이기 때문이다⁶⁾.

東醫寶鑑은 舌卷에 TE₂(Aengmun)과 LI₂(Igan)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는 醫學綱目에서 인용하였다고 하지만 醫學綱目的 원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醫學綱目에서는 ‘針灸舌卷, 獨取手少陽絡與筋. 經云邪客手少陽之絡, 令人喉痺舌卷, 口干心煩, 臂外廉痛, 手不及頭, 刺手中指, 次指爪甲

上去端如韭葉各一. 又云手陽明之筋, 其病支痛, 轉筋舌卷. 治在燔針劫刺, 以知爲數, 以痛爲輸是也'라 하였다⁷⁾. 즉 舌卷의 鍼灸治療는 手少陽絡과 經筋을 이용하여 치료한다고 하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手少陽之絡에 邪가 있으면 舌卷 등의 症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手中指次指爪甲上去端如韭葉에 刺鍼하라고 하였다. 이 부위는 사실 상 TE₁(Gwanchung)에 해당하는 부위이지 TE₂(Aengmun)에 해당하는 부위가 아니다. 따라서 東醫寶鑑에서 舌卷에 TE₂(Aengmun)을 사용한다고 한 것은 잘못된 인용이거나 東醫寶鑑의 저자가 任意로 변경한 내용인 것이다. 사실상 TE₂(Aengmun) 역시 手少陽經의 經穴로 手少陽經筋의 病이 '當所過' 한 경우 舌卷이 발생한다는 東醫寶鑑의 인식에 따르면 手少陽經의 病이 漸漸 深해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禁穴인 TE₂(Aengmun)을 사용한 것도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東醫寶鑑에서 舌卷에 LI₂(Igan)을 사용한다고 한 根據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手陽明之筋, 其病支痛, 轉筋舌卷. 治在燔針劫刺, 以知爲數, 以痛爲輸是也'라는 구절을 살펴보면 이 역시 문제가 있다. 醫學綱目的 내용을 따르면 手陽明之筋에 病이 있으면 轉筋舌卷 등의 症狀이 있을 수 있고 이때에는 以痛爲輸 즉 阿是穴을 취해 치료한다고 되어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이것이 LI₂(Igan)으로 인용된 듯하다. 이는 LI₂(Igan)이 鍼灸大成에서 GV₁₅(Amun) LU₁₁(Sosang) LU₁₀(Eoje) PC₉(Jungchung) KI₁₀(Eumgok) KI₂(Yeongok) 등과 함께 舌強의 治療穴로 사용된 것과 유사한 쓰임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남는다. 東醫寶鑑에서 인용한 醫學綱目的 '手陽明之筋, 其病支痛, 轉筋舌卷. 治在燔針劫刺, 以知爲數, 以痛爲輸是也'은 靈樞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지만 靈樞 經筋篇의 原文에서는 '其病當所過者支痛及轉筋, 肩不舉, 頸不可左右視. 治在燔鍼 刺, 以知爲數, 以痛爲輸'이라 하였다⁸⁾. 즉 手陽明之筋에 病이 들었을 때의 症狀 중 舌卷이 없는 것이다. 같은 구절이 醫學綱目的 다른 곳에서도 인용이 되는데 '其病當所過者支痛及轉筋, 肩不舉, 頸不可左右視. 治在燔針劫刺, 以知爲數, 以痛爲輸'라고 정확하게 인용이 되어 있다⁷⁾. 따라서 舌卷에 LI₂(Igan)이 쓰인다고 한 東醫寶鑑의 내용은 引用誤謬인 것으로 보인다.

舌縱, 舌緩, 舌急에 대한 病因 症狀 등의 자세한 說明은 東醫寶鑑 口舌門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다. 東醫寶鑑 전체를 살펴봐도 舌急은 口舌門 鍼灸法 이외에는 언급된 바 없고 舌緩은 口舌門과 言語문에, 舌縱은 口舌門과 言語문, 小兒門에 한 번씩 언급되어 있다.

東醫寶鑑 雜病篇 小兒門을 보면 '舌縱涎下皆屬於熱'이라 되어 있다. 또한 外形篇 口舌門을 보면 '腎之津液出於舌端'이라 하였다¹⁾. 즉 '舌腫涎下'는 腎과 熱에 관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 外形篇 口舌門 鍼灸法에 나오는 '舌縱涎下取陰谷'이라 구절은 이를 醫學綱目에서 인용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은 靈樞와 甲乙經에서도 보인다. 靈樞 寒熱病篇에는 '舌縱涎下, 煩惋, 取足少陰'라 하였고 針灸甲乙經에는 비슷한 증상에 '舌縱煩滿, 然谷主之', '舌縱, 涎出, 廉泉主之', '舌縱涎下, 煩悶, 陰谷主'라 하여 KI₂(Yeongok), CV₂₃(Yeomcheon), KI₁₀(Eumgok)을 治療穴로 제시하고 있다^{8,9)}. 醫學綱目에서는 靈樞의 '舌縱涎下, 煩惋, 取足少陰'라는 구절과 甲乙經의 '舌縱涎下, 煩悶, 陰谷主'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으며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인용한 것이다. 鍼灸大成에도

KI₂(Yeongok), KI₁₀(Eumgok), CV₂₃(Yeomcheon)을 舌縱의 치료혈로 기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靈樞의 ‘舌縱涎下, 煩惋, 取足少陰’에서 말한 足少陰은 이들 중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가? 황의 의견을 따르면 內經에서 말한 足少陰은 太谿가 되겠지만 이후 針灸甲乙經이나 鍼灸大成과 같은 침구 전문서의 太谿에 대한 설명에는 위와 같은 主治가 나오지 않는다¹⁰⁾. 針灸甲乙經과 鍼灸大成에서 舌縱의 治療穴로 제시하고 있는 KI₂(Yeongok) KI₁₀(Eumgok) CV₂₃(Yeomcheon) 3穴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CV₂₃(Yeomcheon)은 近位取穴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足少陰經에 속하지 않으므로 內經에서 말한 足少陰이 CV₂₃(Yeomcheon)일 가능성은 적다. KI₂(Yeongok)과 KI₁₀(Eumgok)은 둘 다 足少陰經에 속하는 經穴이지만 KI₂(Yeongok)보다는 KI₁₀(Eumgok)이 內經 寒熱病篇의 ‘舌縱涎下, 煩惋, 取足少陰’에서 말한 足少陰일 가능성이 높다. 靈樞 寒熱病篇의 足少陰은 舌縱, 涎下, 煩惋을 겸한 증에 사용한다. 그런데 KI₁₀(Eumgok)은 舌縱, 涎下, 煩悶을 겸한 증에 사용하는 반면 KI₂(Yeongok)은 舌縱과 煩懣을 겸한 증에 사용한다. 즉 KI₂(Yeongok)의 主治 중에는 涎下가 빠져 있는 것이다. 靈樞에서 ‘取足少陰’할 때 涎下라는 증상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는 것일까? 內經 口問篇 第2章 10節에 보면 ‘黃帝曰 人之涎下者, 何氣使然? 岐伯曰 飲食者, 皆入于胃, 胃中有熱則蟲動, 蟲動則胃緩, 胃緩則廉泉開, 故涎下. 補足少陰.’라고 하여 涎下를 치료하는데 補足少陰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⁸⁾. 같은 말이 구문편 제3장에서도 ‘涎下, 補足少陰’라고 되풀이되고 있다⁸⁾. 즉 內經에서는 涎下의 주요한 治療穴을 足少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涎下를 主治症으로 갖지 않

고 있는 KI₂(Yeongok)보다 涎下를 포함한 主治症을 가지고 있는 KI₁₀(Eumgok)이 內經 寒熱病篇의 ‘舌縱涎下, 煩惋, 取足少陰’에서 말한 足少陰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舌縱涎下に KI₁₀(Eumgok)을 사용하는 것은 舌縱涎下가 腎과 熱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KI₁₀(Eumgok)은 足少陰腎經의 合水穴로 水經의 水穴이 된다. 또한 內經 등에 足少陰을 補하라고 한 것을 보아 舌縱涎下に KI₁₀(Eumgok)을 사용하는 것은 腎水의 不足으로 생긴 虛熱이 舌縱涎下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補法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舌急과 舌緩은 혀의 運動性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혀의 運動에 障礙가 발생할 경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言語 驅使의 문제이다. 실제로 口舌門의 鍼灸法을 제외하면 舌急이라는 症狀은 東醫寶鑑에서 찾을 수 없지만 舌緩이라는 증상은 言語門의 鍼灸法에 다시한번 등장하고 있는데, 言語門의 鍼灸法을 보면 ‘舌緩不能言取瘰門’이라 하고 있어 이들 症狀이 言語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舌急은 舌強과 유사한 症狀이며 舌緩은 舌縱과 유사한 症狀이라고 할 수 있는데 東醫寶鑑 內景篇 言語門을 보면 ‘不得語非止一端, 有舌強不語, 神昏不語, 口噤不語, 舌縱語澁, 舌麻語澁, 其間治痰, 治風, 安神, 養氣血, 各從活法治之’라 하여 이들로 하여금 言語에 障礙가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¹⁾.

한편 東醫寶鑑 外形篇 口舌門의 鍼灸法에는 ‘舌急取瘰門, 舌緩取風府’라 하였지만 東醫寶鑑 內景篇 言語門의 鍼灸法에서는 ‘舌緩不能言取瘰門’이라 하였다¹⁾. 두 구절을 모두 고려하여 본다면 GV₁₅(Amun)은 舌緩과 舌急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經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東醫寶鑑 鍼灸篇을 보면 ‘瘰門一穴, 一名舌腫, 一名舌厭, 在風府後

五分, 入髮際五分宛宛中, 入繫舌本, 仰頭取之'라 한 것을 보면 미루어 알 수 있다¹⁾. 즉 GV₁₅(Amun)은 督脈의 穴로 그 經氣의 흐름이 舌本과 연결되어 있어 혀의 이상으로 인한 言語障得를 치료하는 要穴이 되는 것이다.

GV₁₅(Amun)이 舌緩과 舌急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GV₁₆(Pungbu) 역시 舌腫과 舌緩으로 인한 言語障得에 두루 사용할 수 있다. 東醫寶鑑 外形篇 口舌門의 鍼灸法을 보면 GV₁₆(Pungbu)가 舌腫과 舌緩의 治療穴로 등장하고 있다. 舌腫은 혀가 부어 혀를 놀리기 힘들게 되는 것이며 舌緩은 혀가 늘어져 혀를 움직이기 어렵게 된 것으로, 혀의 상태를 보아서도 전혀 다른 症狀으로 보이지만 혀의 運動에 문제가 생겨 言語를 驅使하는데 障得가 發生한다는 면에서는 共通點을 보인다. 東醫寶鑑 雜病篇 風門의 鍼灸法을 보면 '失音不語, 宜鍼瘧門, 人中, 天突, 涌泉, 神門, 支溝, 風府'라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¹⁾. 이는 醫學綱目에서 인용한 것이라 밝히고 있는데 원문을 찾아 보면 '中風失音, 暗門二分留三呼瀉之不可深, 人中三分留三吸瀉之, 天突, 涌泉各五分, 神門, 支溝. 如舌急不語, 暗門二分, 如舌緩不語, 風府三分' 이라 되어 있다⁷⁾. 즉 口舌門 鍼灸法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내용인 것이다. 즉 舌緩에 GV₁₆(Pungbu)를 취한다고 한 것은 中風失音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원래 東醫寶鑑에서 GV₁₆(Pungbu)는 督脈의 流注와 관계있는 頭, 眼, 鼻, 口舌, 牙齒, 頸項, 前陰 등의 疾病과 風, 寒과 관계된 疾患의 治療穴로 주로 쓰이고 있다. 즉 東醫寶鑑 外形篇 口舌門 鍼灸法의 '舌緩取風府'의 의미는 風邪로 인한 舌緩에 GV₁₆(Pungbu)를 사용하여 風邪를 除去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東醫寶鑑

外形篇 咽喉門에는 '咽喉腫痺, 鍼風府, 主咽喉諸病, 及毒氣歸心等, 項惡證, 無不效,'라 한 것을 보아 心火로 인한 舌腫 역시 治療할 수 있는 것이다.

V. 결론

1. 經穴이 소속된 經絡이 病處와 有關한 흐름을 갖고 있기에 해당 病症의 治療穴로 選擇된 것은 CV₂₄(Seungjang), GV₁(Janggang), GV₂₆(Sugu, 人中), CV₂₃(Yeomcheon), KI₂(Yeongok), TE₂(Aengmun), GV₁₅(Amun), GV₁₆(Pungbu) 등이다.
2. 病症과 관련된 臟腑의 機能을 調節하여 疾病을 治療하기 위해 選擇된 것은 BL₄₀(Wijung), SI₃(Hugye), BL₁₉(Damsu), LR₃(Taechung), BL₂₇(Sojangsu), PC₈(Nogung), KI₁₀(Eumgok) 등이다.
3. 病處의 近處에 位置하고 있는 經穴을 近位取穴 한 것은 Ex-HN₁₂(Geumjin), Ex-HN₁₃(Ogaek), CV₂₂(Cheondol) 등이다.
4. LU₁₁(Sosang), LL₄(Hapgok) 등은 經穴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特徵이 해당 病症을 治療하는데 적합한 경우이다.

참고문헌

1. 許浚. 東醫寶鑑. 서울 : 법인문화사. 2005 : 184, 197, 216, 218, 232, 241, 243, 244, 247, 254, 272, 296, 301, 324, 355, 388, 400, 406, 446, 463-73, 483, 484, 486, 496, 497, 498, 517, 524, 530, 538, 544, 562, 567, 585, 609, 624, 639, 710, 759, 819, 843, 845, 859, 889,

- 968, 973, 1014, 1026, 1073, 1136, 1173, 1202, 1349-401.
2. 楊繼州. 鍼灸大成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4 : 337, 682, 723-4, 730, 835, 839, 867, 871, 885-6, 891, 937-8, 964-6, 969, 974, 1027-8.
 3. 이종욱, 이준무. 東醫寶鑑 鼻門의 鍼灸法에 관한 小考. 경락경혈학회지. 2008 ; 25(1) : 61-72.
 4. 양승희, 이준무. 東醫寶鑑 耳門의 鍼灸法에 관한 小考. 경락경혈학회지. 2008 ; 25(1) : 73-84.
 5.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下冊.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8 : 230.
 6.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鍼灸學 <上>. 서울 : 集文堂. 2006 : 142, 187, 531, 688.
 7. 樓英. 醫學綱目. 서울 : 一中社. 미상 : 299-318, 503-9, 656-9, 785-8.
 8.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上冊.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8 : 318, 380-93, 481, 486.
 9. 고희균, 인창식. 침구의학의 뿌리. 서울 : 경희대학교출판국. 2004 : 68, 194, 200.
 10. 黃龍祥. 중국침구학술사대강. 서울 : 법인문화사. 2005 : 283.